

《담론 분석의 이론과 실제》

문화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담론의 문화학 지향해

문학이론연구회 엮음
문학과지성사/A5신/280면/10,000원

정정호 | 중앙대 영문과 교수

담론(談論: Discourse, Discours, Diskurs) 이론은 위반적이고 전복적이다. 담론은 전통적인 '작가' 개념과 '텍스트' 개념을 거부한다. 담론은 텍스트를 "정신사, 작가의 심리, 시적 천재성 등이 표현되는 공간으로 이해"하지 않고 "미적인 것의 물질성을 파악"하고자 하며 작가의 "목소리에 대한 해석학적 경외심"을 "포괄적인 구조에 대한 객관적 탐구"로 대체했고 "교묘한 은폐술로 권위를 보장하고자 했던 텍스트 생산 주체"를 "미심쩍은 가상적 주체로 폭로"한다.

독일에서 공부한 소장학자들이 결성한 '문학이론연구회'가 프랑스의 포스트구조주의자 미셸 푸코의 담론이론과 분석수단을 토대로 "문예학의 일정 대상 영역을 분석하는 데에 적용해보거나 더욱 발전"시켜 "담론 분석 문예학"을 새로운 문학, 문화이론으로 들고 나와 그것이 "문학과 문학연구의 정체성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문화학이나 텍스트학의 한 방편"이라고 주장하면서 엮은 것이 이 책 《담론 분석의 이론과 실제》(문학과지성사)다.

문학의 지평 넓히는 '문화학' 제창해

문학이론연구회의 담론분석 전략은 프리드리히 키틀러의 이론을 수용하면서 "문학 텍스트를 해석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하고 "작가와 작품의 주변에 산재하는 여러 자료들을 재구성하여 작품이 어떠한 담론 연합체로 조직화되는가를 밝힘으로써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텍스트가 지닐 수 있는 기능들과 효과들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담론 분석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담론 분석 문예학을 수용하고 응용하면서 우리 사회의 제반 사회적·문화적 텍스트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서문에서 남 운 교수는 '문예학'이 좀더 넓은 의미의 '문화학'(Cultural Studies)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담론 분석 문예학의 전략적 가능성을 네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작가와 독자가 처해 있는 사회적 문맥을 분석해 작품과 관련된 담론적 입장 관계를 밝히는 문학/사회/담론적 입장; 둘째, 새로운 대중성과 대중매체의 담론적 작동방식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대중매체/대중/문학을 수용하는 입장; 셋째, 사이버 문학, 영화, 잡지, 가요 등 새로운 문학 양식의 사회적 양식과 문학 담론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입장; 끝으로 오늘날 그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문학과 문예학을 새로운 방식으로 되살리기 위해 좁은 의미의 문학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넓은 의미의 텍스트와 담론 체계로서의 문화학을 지향하는 입장이 그것이다.

이 책은 제목이 보여주듯, 제1부에는 담론이론과 담론 분석 문예학을 이론적으로 고찰하는 글들이 실려 있다. 푸코의 경계 위반으로서의 문학 개념에 대한 글, 예술과 법 담론, 그리고 영화의 문자에 관한 논문들이 번역돼 있다. 제2부는 담론 분석의 실제로, 문학작품들과 대중매체 언어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의학 담론을 통한 독일 생애

시 분석>, 마광수의 소설 《즐거운 사라》를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한 <성 담론의 질서와 욕망의 구조 분석>이 눈에 띈다.

푸코의 초기이론만 수용한 점은 아쉬워

독일문학을 공부한 학자들이 위르겐 하버마스의 담론이론이 아니라 프랑스 이론가인 푸코의 담론이론과 분석에 의존하는 것이 이채롭다. 이들은 서문에서 말하듯 이미 프랑스 담론이론을 수용해 문예학적인 가능성을 탐구하면서 새로운 문학이론을 창출해왔던 위르겐 링크 교수의 선행연구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럼에도 지은이들은 '문학의 위기' 또는 '문학의 죽음'이 운위되는 현 단계에서 문학연구 또는 문예학에 담론 이론을 결합시켜 새로운 분석 실천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셈이다.

이 책에서 아쉬움을 찾았다면 그것은 이 책이 "규범적이고 배제하는 논리관계"에 중점을 두는 푸코의 초기 이론에만 주로 의존한다는 점일 것이다. 푸코는 후기 이론 특히 《섹슈얼리티의 역사》 3부작에서 담론의 억압적, 규범적, 배제적 요소를 상당 부분 포기하고 담론의 해방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후기 푸코로 돌아가다 보면 다시 하버마스를 만나는 것은 아닐까?

문학이론연구회의 미래 작업은 "담론 이론을 통한 사회의 제반 담론분석과 담론 분석 문예학을 통한 문학이론과 문학연구방법론의 시계 확장"이 될 것이다. 이들의 작업계획이 큰 결실을 맺어 좁은 의미의 문학텍스트뿐 아니라 넓은 의미의 문화담론까지도 분석, 이해, 비평하는 새롭고도 구체적인 인문학 연구 방법으로 확산되고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

정정호 교수는 서울대 사범대 영어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위스콘신 주립대 영문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중앙대 영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탈근대 인식론과 생태학적 상상력> <현대 영미 비평론> <세계화 시대의 비판적 페다고지> 등을 펴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많아도 이웃 나라 중국의 신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낯설어할 것이다. 더구나 중국의 옛 문화를 한자로 된 진부한 것으로 여기기 쉬운 요즘의 우리에게는 더욱 그렇다. 근래 들어 신화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 나온 《중국신화의 이해》(전인초 외, 아카넷)는 이런 우려를 씻어주면서 중국의 신화를 잘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풍부하고 친절한 주석 돋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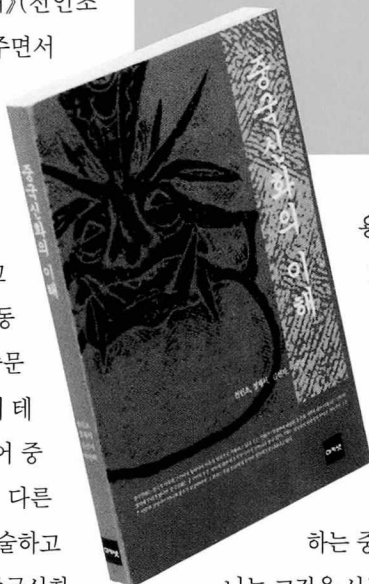
이 책은 그동안의 관련 연구와 비교해 참신하다. 중국신화에 관해 그동안 적지 않은 연구 실적을 쌓아온 중문학자인 4명의 지은이가 각각 두개의 테마를 써서 모두 8장으로 내용을 엮어 중국 신화의 중요 부분을 소개하면서 다른 분야와 비교 연구하는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총 여덟개로 분류된 내용은 중국신화에 대한 전반적인 개괄로 시작해 중국의 창세 신화·영웅신화를 소개하고, 이어서 중국신화를 중국문학이나 민속·한국신화·세계신화와 비교한다. 안쪽으로는 신화와 관련된 문학 및 민속과 연결고리를 찾았고 밖으로는 한국신화 등 외국인신화와 비교했다.

이 책은 조금 어렵게 여겨지기 쉬운 고전 자료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어느 부분의 전문 연구를 일반인들도 쉽사리 접근하도록 쓰기란 그 분야의 학문이 농익은 학자들에게만 가능한데, 중국신화에 대한 개괄서가 많지 않은 시점에서 이 책은 좋은 교재이자 교양서다. 특히 풍부하고 친절한 주석이 눈길을 끈다. 한자나 영문 출처 등으로 점철되기 쉬운 주석 부분을 평이하고 자세한 설명으로 잘 엮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의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세 설명'이라는 이름으로 자상한 해설을 덧붙였다. 본문뿐만 아니라 주석과 상세 설명을 읽는 재미가 따로 있을 정도다. 곳곳에 붙은 그림이나 사진 역시 내용 이해에 적절한 자료로 충분하다. 지은이들이 중국신화를 신화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서구의 다양한 이론이나 자료를 이

《중국신화의 이해》

현대적 관점에서 서술한 중국신화 개설서

전인초 외 지음
아카넷/A5신/288면/12,000원



안희진 | 단국대 어문학부 교수

용해서 비교 설명하고 있고 현대적인 해석으로까지 이끌어내는 부분은 탁월한 전개와 귀납이다.

중국문화의 어느 한 분야를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것을 시공으로 나눠 접근하는 것이다. 하나는 지역이라는 공간적 분할이고, 다른 하나는 고금이라는 시간적 분할이다. 지역을 남북으로 나누면 회화·문학·무술·음식 등 전반적인 문화가 구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금으로 나눌 경우 역시 과거의 중국과 오늘날의 중국이 다른 것이다. '중국'이라는 낱말과 오늘날의 행정적 중국 영토의 것으로만 파악하기 시작하면 중국은 알 수 없는 나라다.

해설의 일관성 부족한 점은 아쉬워

신화에 관한 논의 역시 이런 시간적·공간적 구도를 간과할 수 없다. 문화의 중심이 어느 곳의 어느 시점에 분포해 있었는가 하는 것은 신화의 실체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다. 따라서 신화라는 것이 문자 기록에 의거하는 것임에도 중국신화를 말하려면 다음의 두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신화인가이며 또 하나는 어느 시기에 탄생한 신화인가 하는 점이다.

먼저 지역을 나누면 대략의 예를 들더라도 동북·서북·중원·서남·강남·남방 등이 다. 시기를 중심으로 논의하자면 신화가 전하는 문헌이 찍어진 시점이다. 선진 시기의 기

록인지, 한대의 것인지, 아니면 위진시기의 것인지는 상당히 중요한 구분자다. 이런 입체적 기준으로 신화에 접근한다면 중국의 신화는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 다양한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중국신화를 조명한 이 책은 이 같은 시각으로 볼 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그것은 다른 중국신화 연구와 다름 없이 모든 한문자료를 모두 '중국'이라는 범주에 넣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산해경》이 오랫동안 고대 중국의 학계에서 주목받지 못한 것은 그 내용이 '중국'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변방'의 것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산해경》은 신화의 배경으로서는 전통개념의 '중국'에 관한 기록이 아니다. 다른 문헌의 일부 신화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교류되는 해외, 즉 인도나 신강 지역의 것이 들어와 윤색 가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중국의 것으로 본다면, 산발적인 신화의 자투리를 모아 모양이 있는 그림으로 그려내는 것이 중국 신화학자들의 소임이다. 이 책은 그런 부분에 대한 학계와 일반인들의 요구를 잘 충족해준다. 다만 여러 학자가 쓰면서 보여준 중국 신화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풍부한 관점이 오히려 인용 부분에서 중복되고, 해설의 일관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전설과의 구분이 모호하거나 신화라고 볼 수 없는 자료의 삽입 등은 정리됐으면 하는 부분이다. ■

안희진 교수는 단국대 중문과를 졸업하고 현재 단국대 어문학부에 재직 중이다. 논문으로 《소시기가예술연구》 《한국적 중국고대 문학 연구현황》 등이 있고, 《실용초급한국어》(공저) 등을 펴냈다.